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family strength on the young children's ego-resiliency

이현주(Lee, Hyun Ju)* · 문혁준(Moon, Hyuk Jun)**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25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자아탄력성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가족원 간의 유대 및 가족의 가치체계공유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자신감 및 쾌활감은 고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를 둔 유아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mhyukj@unitel.co.kr

I. 서론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로부터 초래된 급격한 가정의 변화는 유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 경제의 위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증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성취요구에서 비롯된 조기 교육과 같은 환경적 변인들이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많은 유아들이 적합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만성적인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는 모든 노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내적 스트레스 등의 요구들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적응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Tellegen, 1985)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Block & Ker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들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 지적 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효율성이 높아 도전적 과제에 대처할 다양한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mezy, 1993). 아울러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적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다(Block, 1982). 즉 낮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Mischel, Shoda & Peake, 1988).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융통성이 없어 상황의 역동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외상을 경험한 후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인다(Block & Gjerde, 1990). 이들 연구에서처럼 자아탄력성은 동일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상황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김선희와

김경희(1999)에서 가정의 소득이 적을수록, 아버지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보고한 반면에,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인 풍요 등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많은 연구결과들(정미현, 2002; 이은미, 박은진, 2002; 장진아, 신희천, 2006)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과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건강한 결혼생활,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수준과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이라고 하였다(강기숙, 2001; 김성수, 2006; 전은희, 2008).

장휘숙(1998)에 의하면, 영아기에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은 유아기와 아동 중기에 사회 정서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정(2002) 또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유아일지라도 수용적 양육태도와 가족의 강인성이 높을수록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가 돈독하며 결속력이 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물질적 풍요와 번영만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소득이나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에 대한 복지향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객관적인 복지조건에 호응하는 주관적인 복지, 즉 심리적 복지감이다. 현대는 삶의 질과 그에 따른 주관적인 심리적 복지감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결혼한 여성은 자녀양육만을 전담하는 주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러한 어머니 역할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최진원, 2004).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경쟁성, 독립심을 양성시키기에 필요한 양육태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Belsky, 1984).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태도와 자율성 촉진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서영, 2007).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늘 겪고 있을 뿐 아니라(서정성, 2004;

이랑, 2003),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Marks, 1977).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에 비해 위기감이나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남정자 외, 1996; 장하경, 1992)는 연구결과와 남정자 외(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기나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earlin & Schooler, 1978).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의 직업을 갖게 되어 수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라는 인적 자본이 그 가정이 취할 수 있는 재정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심리변인이나 인지 및 정서적 상태의 안정성과 만족감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우울감, 정서상태,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 구체적이거나 단편적인 변인으로 예측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인지적이며 심리적인 상태를 통합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의 측면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가족학 분야에서는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건강성'이란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어은주, 1996). 허봉렬(1996)은 가족의 전체 체계가 기본적인 목표(가족의 공동 욕구 충족, 개개인의 성장발달 도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안식처 제공,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를 잘 달성하고 있을 때를 가족이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의 심리발달,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건강한 가족에 속한 자녀의 심리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즉,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탄력성은 높아지고 부모의 심리체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것이며, 반대로 가족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에도 소원한 관계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할 것이다.

가족건강성과 관련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이향련, 1986; 윤세은, 2000; 권대회, 2003; 윤세은, 2000) 나타났으며, 박소영(1995)은 부모의 교육정도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고 가정과 사회경제 간에 관계가 깊으므로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였다. 부모의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의 건강성을 매우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 유형에서는 어머니가 육체노동,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족의 건강성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김진희, 1989; 윤세은, 2000; 권대회, 2003).

또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의 연구를 보면, 이은미(2001)는 부모가 따뜻하게 돌보고 자녀의 문제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화를 즐길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는 일이 적고 과잉보호하는 일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희경(2005)도 가족의 건강성 하위 요인들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며, 특히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가치체계 공유, 가족 간의 친밀감이나 화목은 자아탄력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수, 노성덕, 2003).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연구(소은선, 2007; 안선희, 김선영, 2004; 어은주, 1996)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가족건강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기초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의 건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회 인구학적 배경(어머니의 학력,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5개 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유아 224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224명의 유아 중 남아와 여아는 각각 112명(50.0%)으로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형제가 하나인 유아는 136명(60.7%)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형제가 없는 유아가 53명(23.7%), 2명 이상인 유아가 35명(15.6%)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 또는 외동아가 131명(58.5%)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78명(34.8%), 셋째 이상은 15명(7.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연령을 살펴보면, 35세~40세 미만은 132명(58.9%)로 가장 많았고 35세 이하가 57명(25.4%), 40세 이상이 35명(15.6%)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77명(34.4%), 전문대졸 이상이 147명(65.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가 91명(40.6%), 비취업모가 133명(59.4%)이었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47명(20.5%)이상, 127명(56.7%)이 중중, 50명(22.8%)이하로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24)

	구분	빈도	%
성별	남	112	50.0
	여	112	50.0
형제수	형제 없음	53	23.7
	1명	136	60.7
	2명 이상	35	15.6
출생순위	첫째 또는 외동	131	58.5
	둘째	78	34.8
	셋째 이상	15	7.7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57	25.4
	35세 ~ 40세 미만	132	58.9
	40세 이상	35	15.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77	34.4
	전문대졸 이상	147	65.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91	40.6
	비취업모(전업주부)	133	59.4
가정생활수준	상	47	20.5
	중	127	56.7
	하	50	22.8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아동 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for Children: KPI-C)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의 중요한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는 도구로서 만 4세~만 15세의 아동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6개월간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특히 여성보호자)나 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자신감 및 쾌활감, 낙천성 및 자기수용, 또래관계 등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과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3점의 평가범주로 구성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3, .65, .81이며 총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척도는 Ryff와 Keyes(1995)가 개발한 PWB(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18문항과 Pavot와 Diner(1993)가 개발한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5문항을 박서영(2007)이 번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PWB는 심리적 복지감, SWLS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판단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적 복지감 측정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로, PWB는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자기 수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SWLS는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3문항으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4, .84로 나타났다.

3) 가족건강성

가족 건강성 측정을 위해 어은주,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에 의하면, 가족구성원 중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가장 대표성 있는 측정치가 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 측정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 총 32문항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9, .88, .81, .85이며 총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5군데 유아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통해 2010년 10월과 11월에 배부되었으며, 회수율은 90%로 23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224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학력,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 자아탄력성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고졸 이하(M=2.50, SD=.41)보다 전문대졸 이상(M=2.58, SD=.42)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감은 고졸 이하(M=2.36, SD=.52)보다 전문대졸 이상(M=2.53, SD=.51)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가족원 간의 유대는 고졸 이하(M=3.02, SD=.38)보다 전문대졸 이상(M=3.13, SD=.37)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고졸 이하(M=2.28, SD=.33)보다 전문대졸 이상(M=2.87, SD=.34)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은 고졸 이하(M=2.84, SD=.28)보다 전문대졸 이상(M=2.85, SD=.33)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가치체계공유는 고졸 이하(M=2.73, SD=.37)보다 전문대졸 이상(M=2.88, SD=.39)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에서 자신감 및 쾌활감은 고졸 이하(M=1.71, SD=.28)이 전문대졸 이상(M=1.61, SD=.28)보다 높게 나타났고, 낙천성 및 자기수용은 고졸 이하(M=1.80, SD=.23)이 전문대졸 이상(M=1.75, SD=.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관계는 고졸 이하(M=2.17, SD=.48)가 전문대졸 이상(M=2.12, SD=.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 자아탄력성의 차이 (N=224)

		고졸 이하 (n=77)	전문대졸 이상 (n=147)	t
		M(SD)	M(SD)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안녕감(PWB)	2.50(.41)	2.58(.42)	-1.25
	삶의 만족감(SWLS)	2.36(.52)	2.53(.51)	-2.29*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전체)	2.47(.34)	2.56(.37)	-1.78
가족건강성	가족원 간의 유대	3.02(.38)	3.13(.37)	-1.98*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2.28(.33)	2.87(.34)	-1.94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2.84(.28)	2.85(.33)	-.24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2.73(.37)	2.88(.39)	-2.73**
	가족건강성(전체)	2.84(.31)	2.94(.33)	-2.09*
유아 자아탄력성	자신감 및 쾌활감	1.71(.28)	1.61(.28)	2.38*
	낙천성 및 자기수용	1.80(.23)	1.75(.25)	1.53
	또래관계	2.17(.48)	2.12(.46)	.76
	유아 자아탄력성(전체)	8.03(1.14)	7.84(1.03)	1.25

*p<.05,**p<.01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중 심리적 안녕감은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1.14, p<.0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M=2.59, SD=.48)과 중 집단(M=2.55, SD=.50)이 하 집단(M=2.18, SD=.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서 삶의 만족감은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7.28, p<.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M=2.70, SD=.41$)과 중 집단($M=2.56, SD=.42$)이 하 집단($M=2.39, SD=.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유대는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6.03, p<.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M=3.20, SD=.32$)과 중 집단($M=3.11, SD=.37$)이 하 집단($M=2.95, SD=.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97, p<.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M=2.95, SD=.29$)과 중 집단($M=2.83, SD=.34$)이 하 집단($M=2.73, SD=.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은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52, p<.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가치체계공유는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6.56, p<.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M=2.97, SD=.35$)과 중 집단($M=2.83, SD=.37$)이 하 집단($M=2.69, SD=.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아 자아탄력성 중 자신감 및 쾌활감, 낙천성 및 자기수용, 또래관계는 가정생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N=224)

		상 (n=47)	중 (n=127)	하 (n=50)	F
		M(SD)	M(SD)	M(SD)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안녕감(PWB)	2.59(.48)a	2.55(.50)a	2.18(.52)b	11.14***
	삶의 만족감(SWLS)	2.70(.41)a	2.56(.42)a	2.39(.34)b	7.28**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전체)		2.67(.36)a	2.56(.39)a	2.35(.29)b	10.96***
가족 건강성	가족원 간의 유대	3.20(.32)a	3.11(.37)a	2.95(.38)b	6.03**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2.95(.29)a	2.83(.34)a	2.73(.36)b	5.97**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2.95(.31)	2.83(.31)	2.79(.29)	3.52**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2.97(.35)a	2.83(.37)a	2.69(.41)b	6.56**
가족건강성(전체)		2.91(.33)a	2.91(.32)a	2.79(.34)b	6.64**
유아 자아탄력성	자신감 및 쾌활감	1.66(.34)	1.64(.28)	1.66(.25)	.21
	낙천성 및 자기수용	1.77(.21)	1.75(.25)	1.79(.25)	.51
	또래관계	2.21(.48)	2.11(.46)	2.12(.47)	.76
유아 자아탄력성(전체)		8.15(1.13)	7.86(1.05)	7.82(1.05)	1.47

* 영문자는 Scheffé 검증결과 임(a>b)

** $p<.05$, ** $p<.01$, *** $p<.001$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 자아탄력성간에 관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 자아탄력성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변인 중 심리적 안녕감($r=.33, p<.001$), 삶의 만족감($r=.18, p<.01$)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r=.34,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 자아탄력성 변인은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가족원 간의 유대($r=.34, p<.001$),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r=.35, p<.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r=.32, p<.00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r=.29, p<.001$) 그리고 가족건강성($r=.3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 자아탄력성의 관계

(N=2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1.심리적 안녕감(PWB)	1											
	2.삶의 만족감(SWLS)	.30***	1										
가족건강성	3.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전체)	.96***	.56***	1									
	4.가족원 간의 유대	.34***	.46***	.44***	1								
	5.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5***	.44***	.43***	.80***	1							
	6.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3***	.30***	.37***	.73***	.77***	1						
	7.가족의 가치체계공유	.31***	.50***	.42***	.82***	.79***	.72***	1					
	8.가족건강성(전체)	.36***	.48***	.46***	.93***	.92***	.85***	.93***	1				
	9.자신감 및 쾌활감	.23**	.09	.23**	.12	.15*	.16*	.11	.14*	1			
	10.낙천성 및자기수용	.17*	.11	.18**	.23**	.20**	.15*	.18**	.21**	.47**	1		
유아 자아탄력성	11.포래관계	.16*	.02	.15*	.11	.13	.15*	.10	.13	.52***	.45***	1	
	12.유아 자아탄력성	.33***	.18**	.34***	.34***	.35***	.32***	.29***	.35***	.75***	.69***	.81***	1

* $p<.05$, ** $p<.01$, *** $p<.001$

3.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사회 인구학적 변인(모학력, 가정생활수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 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03~4.06), TOL는 0.1이상(.24~.97)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어머니 학력, 가정생활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2%로 나타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관계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가족건강성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6%로 나타났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관계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표 5.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224)

독립변인	유아의 자아탄력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모학력 ^a	-.19	-.08	-.24	-.11	-.27	-.12
	가정생활수준 ^b	.08	.04	-.13	-.75	-.14	-.07
	가정생활수준 ^c	.34	.13	.02	.09	-.05	-.02
어머니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안녕감(PWB)			.75	.29***	.56	.22**
	삶의 만족감(SWLS)			.26	.12*	.03	.02
가족 건강성	가족원 간의 유대					.57	.20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50	.16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05	.0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16	-.06
F값		2.86**		6.68***		6.78***	
R ²		.03		.15		.21	
R ² 변화량				.12		.06	

*p<.05 **p<.01 ***p<.001

a: 가변수(고졸 이하=0, 대졸 이상=1), b: 가변수(하=0, 중=1, 상=0), c: 가변수(하=0, 중=0, 상=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첫째, 고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가족원 간의 유대 및 가족의 가치체계공유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들어 가고 가족 간에 서로 비슷한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최정혜, 2004; 홍성례, 유영주, 2001). 즉, 어머니의 학력은 가족건강성의 지각의 차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녀와의 대화의 폭이 넓고 긍정적으로 자녀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김진희, 1989)는 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족의 건강성 지각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및 쾌활감은 고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를 둔 유아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정미와 우희정(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학력신장, 용이해진 다양한 정보의 접근,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요인에 의해 어머니의 학력 변인만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결정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생활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 및 유아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변인 중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감은 가정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대처자원을 사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가족역할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진미정, 옥선화, 1994; 이기영, 1987)와 일치한다. 이는 가정생활수준은 가족의 구성원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의 획득과 소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질적, 인적, 사회적 자

원의 획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상실감 혹은 만족감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공유는 가정생활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홍성애(1998), 윤세은(2000), 권대희(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했다는 연구결과와 가정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문제해결이 원활이 이루어지며 가족 간의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상호존중과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이영재(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가족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에 유대가 생겨 서로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며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가족의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가족 간에 가치관 및 신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서적인 교감과 지지를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 자아탄력성간에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건강성, 유아 자아탄력성의 세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은 유아 자아탄력성에 매우 유의미한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유아 자아탄력성이 발달하며, 가족건강성 역시 높을수록 유아 자아탄력성이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감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감정적 지지의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으며(양영혜, 2003),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 밀접한 관계가 있다(전아영,2006, 하명선, 2006)는 선행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지각과 경험의 해석 및 행동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말투나 표정, 그리고 감정이 자녀에게 모델링의 효과로 반영되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가 상황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융통성과 높은 적응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 요인 중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그리고 가족건강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강희경(2005)의 연구와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는 자아탄력적인 아동의 가족환경 요인이라고 한 Garmezy(1985)와 Rutter(198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새롭거나 위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잘 조절하는 행동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Block & Block, 1980).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기통제력, 가족형태, 모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자기통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결과 가족형태나 모의 취업여부 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특성이 높을 경우 유아는 외적 자극에 대한 충동 혹은 행동을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한다고 하였다(김은열, 2002; 김희태, 이임순, 2003).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가 좋고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어머니가 설명이나 타협의 언어적 통제방식으로 자녀의 자기통제를 강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동기가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은 유아는 어머니의 삶의 자세를 영향 받아 자아탄력성이 높게 표출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몇몇 연구들(장휘숙, 1998; Egeland & Farber, 1984)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그 유아의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

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생활여건 향상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환경과 연령을 고려한 대상선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귀결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숙(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인지양식 및 자기통제행동발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권대회(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대회(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25-150.
- 김성수(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학회지**, 9, 145-170.
- 김은열(2002). 가족의 응집성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수, 노상덕(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1, 153-172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태, 이임순(2003).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 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21.
- 남정자(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에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영(1995).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응집성 및 응집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성(200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은선(2007). 도시 영유아기 가족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혜(2003). 부부 취업 양상에 따른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녀 양육태도의 차이.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45-156.
-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자녀교육이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45-156.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랭(2003). 자녀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재(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가 미래성공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은미(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미, 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향련(1986).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아영(200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적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은희(2008).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현(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 탄력성 및 친구간의 갈등 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아,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 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하경(199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1998).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진미정,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3.
- 최정미, 우희정(2002). 초·중학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65-76.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명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봉렬(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떠한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강가족운동본부.
- 홍성례,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홍성애(199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3), 753-771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56(1), 127-136.
- Garnezy, N. (1985). Stress of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 Stevenson(eds.), Children at risk for schizopbrenia(pp.213-233).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Marks, S. (1977). Multiple roles and strain; Some note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 921-936.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Behavior*, 19, 2-21.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3), 316-331.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on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Duma & J. D. Maser(eds.), Archcity and the archcity disorders, 681-706.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family strength on children's self-resilience. Subjects were consisted of 250 5-year-old children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some sub-components, such as the satisfaction of life, the relationship of families, and the sharing value between family members, those of mothers who had college diploma or highe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mothers who had educational attainments equal to and lower than those of high-school graduate. But with regard to confidence and cheerful personality, those of children with mothers who had educational attainments equal to and lower than those of high-school graduat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hildren with mothers who had college diploma or higher. Second, there were partial correlations among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strength, and self-resilience. Thir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as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children's self-resilience.

Key Words : Young children's ego-resiliency, Family strength,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2011. 09. 30. 투고 : 2011. 12. 12.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6. 최종게재결정